숲정이

대림 제 4 주일
제 1 독서 : 2사무 7, 1-5. 8 b-12. 14 a-16
제 2 독서 : 로마 16, 25-27
복 음 : 루가 1, 26-38

"마리아,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루가 1, 31-32).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님이 나신 밤

• 최 민 순 신부 •

천주 성자 강생하사
사람 되시니, 사람이 되시니
사마리아의 고마운 사람 되사
기름과 술로 내 상처 발라주시니
구유에 누우신 아기의 입김에
내 숨결 다시 돌아오고
붉으신 그 성심의 용솟음에
핏줄마다 새목숨
나 안에 흐르옵니다.
원죄의 비늘 걷히운 눈으로
새파란 하늘 다시 들어오고
휜칠한 귀에 메아리하는
천사들의 노랫소리

오늘이사 어느 체살도
부럽지 않는 날
황금과 유향과 밀하를
지니지 못한 손이
아, 당신을 안아볼 수 있는
복스러움이

오로지, 오로지
당신의 은혜로소이다
가난하기에 아쉬웁던 몸
차라리 텡 비도록
가난한 마음을
마련하고 싶어지옵기는
그만치 당신이 차지하실 자리를
온통 드리고저 함이오니
님 하나시면
온 세상도 화사한 꼭뒤
내 차라리 베들레헴의 헐벗은
목동이 될지언정 다시는
살로몬을 새암하지 않으리다
살으리이다, 가난하고 싶은 영혼
성모님처럼 당신만을 껴안고
나 살으려노니
죽는 날까지 당신의 구유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여.

오늘 큰 빛이 세상에 내리셨도다

●1990년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성탄 메시지●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에서 즐거워 할 것입니다"(이사 9,1-2).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으로 기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에 빛이 되어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며, 꺼져가는 생명을 넘치는 힘으로 되살려주시는 우의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분이 참으로 임하시는 땅, 그분을 깊이 모셔이는 사람들의 마음마다에는 밤의 어두움에서 한낮의 란한 태양 빛으로 옮겨가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살이 살아나고, 천대만 받고 살던 가난한 이들에게 환한 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공연한 도둑으로 알려진 세리가 당장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으며, 강도가 인이 되고 창녀가 어엿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런 일은 예수께서 세상에 살아 계시던 동안에만 이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한층 더 잘루어진 것은 그분의 지상 삶이 끝나고, 약속하신 대로, 령을 보내주시어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에까지 그분이 려오시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오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셔들이는 곳과 사들의 마음마다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비쳐오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음속을 들여다 볼 때, 얼마나 짙은 어두움이 아직도 세력을 이루고 있는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파행을 속하고 있는 정치 상황에서부터 반인간적 행위를 죄 식마저 없이 저지르는 세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외부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를 큰소리로 말해주고 있는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눈길을 돌릴에도 역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적 경향이 드리워 있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갑게 맞이해 드리지 않아서 그분은 결국 짐승의 세계로서나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성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음성서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으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정이 참으로 라졌는가? 교회들이 그렇게나 많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로 불어난 지금, 그분은 우리회와 각자의 마음속에서 틀림없이 안식처를 얻으실 수는가? 많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분이 당신을 반기는 음을 찾지 못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시 3,20) 형편이 아닌가?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요한 1,10-11). 복음사가 요한의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특히 성탄을 맞이하여 피상적인 축제 분위기에만 휩싸일 수는 없게 합니다. 성탄 카드를 교환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구끼리 또는 가족끼리 모처럼의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여 즐겁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정작 그분은 어느 축제에도 끼지 못하시고 추운 외양간쯤에서 떨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을 맞이했던 목동들과 마리아의 태도를 잘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천사들로부터 그분이 계신 곳을 전해들은 목동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으며', 아기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세 때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 그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시작된 생명은 그 특유한 감각으로 그분이 계신 곳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에 계시기가 쉬운 분입니다. 사람들이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른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동안,. 그분은 가장 힘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을 하고, 엉뚱하게도 짐승의 외양간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굶주린 사람,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집 없어 서러운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옆에 계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바가 있습니다(마태오 25장 31절 이하 참조). 인도의 데레사 수녀님은 옷이 없어 헐벗은 처지보다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헐벗게 된 처지가 밥이 없어 느끼게 되는 굶주림보다 따뜻한 사랑을 만나지 못해 느끼는 굶주림이 훨씬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동료 인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 주님을 참으로 우리 안에 모셔들인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 어디에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약속이 자신 안에 놀라운 방식으로 실현되어감을 보면서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오래오래 새겨 그 신비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아들로 오신 그분 덕택으로,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하느님의 자녀"(요한 1,12 참조)가 되면, 우리 안에서 성탄의 신비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셈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총의 빛이 우리 각자와 이웃 형제, 특히 오랫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형제들과 이북의 동포들에게도 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두 함께 외칩시다.

"알렐루야.
거룩한 날이 우리를 위해 밝았으니,
만백성들아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세.
오늘 큰 빛이 세상에 내리셨도다."

숲정이 산책

성탄의 참뜻

베 비 라
산 준비물, 유아복 및 아동복
이 명 억 (데레사)
관동로 풍년제과 앞
☎ 83-3610

분 완성
북칼라현상소
결혼·회갑·야외 촬영
표 오 희 웅 (암브로시오)
주시 고사동 1가 연금매점 남쪽
(오거리) ☎ 85-5335

심木공업사
구·제대·강론대·제구장·긴의자
상·화분대·혼례용가구맞춤전문
서 스테파노 (옥봉)
한 안나 (은순)
☎ 77-1747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또
☎ 84-2628

자연건강 교육및상담, 단식지도
각종특수요법 (관장, 겨자찜질, 토란마고약, 된장찜질, 각탕등) 실습지도
월~금: 오후2시~5시 (일, 공휴일제외)
토요건강강좌오후3시~5시
평화분회장 김순자 (로사리아)
☎ 82-2933
생명운동 지도신부 : 박 병 준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부보쌈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봉 교 (미카엘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최 영 자 (헬레나)
☎ 88-6951
동서관통로 신탁은행 앞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여
최 윤 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 · 해외연수생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 · 2-8653

김치일체, 밑반찬, 젓갈류
〈주 문 환 영〉
성 가 반 찬
박명선 (엘리사벳), 영규철 (요셉)
중앙성당 옆 시장 입구
☎ 253-6429

여성팀장 채용
1. 모집인원 : 2명
2. 자 격 : 30~43세의 대졸 이상 학력자. 단, 고졸은 조직관리 경력자.
3. 대 우 : 기본62만원+분기고과수당 등 6종 2자녀 학자금100%지급(중, 고, 대)
4. 전 형 : 서류 및 면접 (적성검사)
5. 서 류 : 이력서1통, 사진4매, 주민등록등본 1매
6. 기 간 : 1990년12월28일까지
7. 서류제출처 : 전주시 진북1동368-1 동부애트나
8. 기 타 : 주5일 근무 (09 : 00~17 : 00)
• 보험 모집은 하지 않음
동부애트나생명 전주영업소
☎ 253-6401~7
소장 최 춘 식 (프란치스코)

겨 울 방 학 강 좌
개강 12月 27日
大 入 종 합 반
개강 1月 7日
대입전문 전주 한샘학원
전주 74-7424, 85-7424 시청옆 동방생명앞

주단·침구·혼수 전문
부 인 주 단
김 한 중 (요 한)
황 인 재 (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옆
☎ 84-7294

기 숙 생 모 집
대상 : 여자 대학생 (신입생 포함)
인원 : 80명 (종교 관계없음)
문의 : 원죄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 (02) 911-7580

감옥 창살 너머로 뵙는 어머님 !

-문규현 신부의 옥중 편지-

+ 찬미 예수

어머님께 드립니다.

지난번 접견시 어머님을 뵈온 후 죄스러움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단식으로 수척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예상밖으로 어머님이 오셔서 몹씨 당황했었습니다. 의연한 채 하면서 어머님을 똑바로 뵈올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빠른 우리 어머니 다 알아차리셨을 것이 분명함에도 시치미를 떼고 있어야 할 접견시간이 길기도 했었습니다. 마음 아파하실 어머님을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루시아에게 물으니 역시 어머님은 눈치를 채셨더군요. 어머님을 푸른 수인복을 입은 채 창살 너머로 뵙는 그것도,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뵙는다는 것도 불효막심한데 뜻이 있다고는 하지만 굶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를 생각하니 한없는 죄스러움에 눈물로 속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분단의 아픔이 계속되는 척박한 이 조국의 현실에서 어머니께는 불효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어머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주시고 용서해주시기를 빕니다.

어머님이 제게 바라신 것은 참다운 사제가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어머님 원하시는 참다운 사제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머님 원하시는 참다운 사제는 모든 이의 사제, 겨레와 민족을 위한 사제일 것입니다. 모든 이의 모든 것이신 우리의 유일한 사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갈라져 잃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됨의 평화를 위해 당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머님께서 이 아들에게 원하신 사제직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제직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는 저로선 훤하게 보이는 감옥행이었지만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민족의 하나됨인 통일을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고 대립 관계를 조장하는 세력들을 조용히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분단 상태에서 평화를 말할 순 없지 않습니까? 동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전쟁을 치뤘는가 하면 오늘도 무기를 개발하고 동족을 죽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북도 남도 적이 아니요 한겨레라고 몸으로 외치고 분단의 벽을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이것이 이 민족에게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분단을 가로질러온 수경이는 감옥에서 부모, 형제, 학우들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요한 17,21) 하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올 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길이 저로선 오늘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위한 사제적 몸부림이었고, 그래서 수경이의 손을 잡고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최소한의 분단을 유린했던 8월 15일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밤마다 잠인들 편히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음식인들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님, 어머님은 아들이 어디에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참된 사제이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사제는 하느님의 명령을 -사람의 명령- 죽음을 다해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 저의 전체로 응답해야 할 삶이 사제적 삶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 하느님 사랑 안에 하나될 수 있습니다.

제 형제, 제 동족, 제 민족의 일치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님과의 일치, 그 안에 영광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 몸부림치는 것이며 비록 어머님께는 육적으로 불효의 길일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님 말씀드린대로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민중의, 민족의 사제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으로 함께하고 있노라고.

건강하십시오.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원하며 소자 바오로 올림.

원고를 기다립니다.

- 신앙 체험 수기, TV드라마와 라디오를 보신 소감 원고 모집-원고 5매 이내(전주 시외 지역 분들의 참여바람)
- 보내실 곳 : 560-090 전주시 시 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0652) 85-0041

고장난 오르간 때문에 만들어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빠지지 않고 불려지는 노래가 있다. 어른 아이 할것없이 모두들 좋아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바로 그 노래이다. 이 노래의 작곡가는 프란츠 사버 그루버(Franz Xaver Gruber) 라는 당시 오스트리아의 오베른도르프(Oberndorf)라는 작은 마을의 성니콜라오 성당의 오르간 반주자이다. 그리고 작사자는 이 성당의 젊은 보좌신부였던 요셉 모어(Josef Mohr)이다.

이 곡이 작곡된 동기는 1818년 당시 성니콜라오 성당의 고장난 오르간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원래 음악을 좋아해서 성탄을 기해 함께 멋진 곡을 만들기로 했었다. 그러나 성탄절이 다가왔건만 고장난 오르간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12월24일 모어 신부는 스스로 만든 가사를 가지고 와서 그루버에게 곡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했고, 바로 그날밤 그는 곡을 만들게 되었다. 지금도 이 곡이 맨처음 불려진 성니콜라오 성당에서는 매년 성탄 전야 저녁 5시에 이 노래에 대한 기념제가 열리어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이 성당을 에워싸고 각국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한다.

교구소식

1. 참사회 : 27일(목) 오전10시30분 교구청.
2. 혼인강좌 : 30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타 회비-5,000원.
3. 교구 신년 하례식 : 1월2일(수) 오전11시 가톨릭센타.
4. 교구 평협 정기 총회 : 1월2일(수) 오후 2시 가톨릭센타.
5. 전주 제6차 선택 : 91년 1월25~27일 천호 피정의 집. 대상-미혼 젊은이, 회비-25,000원 접수·문의-교육국(85-0041)
6. 전주 선택인의 날 : 12월 29일(토)오후2시30분 가톨릭센타. 대상-선택을 수강한 모든 선택인. 회비-1,500원
7. 전북일보 천주교 고정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 24일(월)-가톨릭의 양심과 불의(정인섭 선생), 26일(수)-물질이 낳는 비극(최용준 신부), 29일(토)-언제부터 사람인가? (홍보국)
8. 은혜의 밤 철야 기도회 : 28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김진소 신부.
9.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부 신입생 모집 : 신구약성서 입문과정(2년), 중급과정(4년), 바울로 영성사상과정(1년). 서류-입학원서, 증명사진 2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서교부·접수-91년 1~2월10일. (02)984-1611, 성바오로 서원(0652) 252-3398.

※ 축! 영명 : 26일(성스테파노) 김치삼, 김환철, 나춘성 신부님, 27일(성요한 사도) 서석구, 김병환, 김기수, 전종복, 이덕근, 김선태, 김희태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여 사무원 채용
• 자격 : 23세 이하의 미혼 여성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교적사본 1통
• 마감 : 90년 12월 30일까지
• 면접 : 1월 1일
• 문의 : 83-8245. 85-6979
평화동 천주교회

이 전 개 원
김형곤 내과 의원
김제시 요촌동 전북빌딩 1층 (제일극장 옆)
원장 김 형 곤(베드로)
유 숙 영(엘레나)
☎ 김제 45-0088

양재·한복·홈패션
노 라 노 학 원
수시모집, 원장 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 형 문(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 앞·민정당사 옆
☎86-2715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약혼복·무대복·마출대여
비디오·야외스냅촬영
신부화장
유 순 례(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82-2347

한일합섬 상설 할인 매장
'세잔느, 제노바, 윈디 전주점'
이 강 헌(바 오 로)
서 금 순(세실리아)
전동 코오롱 쇼핑 2층
☎쇼핑 82-2992, 자택 83-4375

핸드백·스카프·악세사리
남자지갑·벨트·여자용품·기타
선 물 의 집
아 씨 방
우체국 시거리 중앙동 최절상가 시범로
차 승 희(엘리사벳)
☎ 86-2495

방학 특강반 모집
(유치부·국교부)
미술실기 및 이론, 그림일기
원 아 모 집
만3세~6세 2개반 몬테소리교육
관인 **다예미술학원**
효자 광진목화APT 시거리 3층
방문상담·전화상담 환영
☎ 223-8355
학원자동차 운행
미술과 전공
박 경 화(마리아)원장 직접 지도

겸겨울방학특강도
모든 교육의 초석이 되는 예의범절 교육을 중심으로 정신력 집중, 자신감향상, 신체 단련을 위하여 교우여러분의 검도 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련시간은 전화 문의바랍니다)
대상 : 유치부, 국교부, 중·고, 대·일반(남·여)
☎ 72-8009. 223-6655
세심관(금암동) 김태경(빈첸시오)
화랑관(효자동) 김태영(비 오)

코오롱 맨스타 전주점
맨스타 90 추동 제품 30%할인
맨스타 89 추동 제품 50%할인
(간이복)
스파소 89 추동 제품 60%할인
전주시 중앙동 풍년제과 앞
김돈중(아드리아노) ☎88-8415

낙농, 비육, 양돈, 산란, 육계, 개사료 기타(특수 사료) 일절
제일제당 배합사료
군·옥 특약점
대표 김 영 식(시베리오)
사무실 451-2011. 자택 451-3199
※ 양돈 납품 출하 상담

겨울방학은 컴퓨터와 함께
한 누 리 컴 퓨 터
김 창 영(도미고)
☎ 252-1698
덕진 성당 뒤
뜻깊은 성탄 선물은 컴퓨터로

축! 개 업
진선미 웨딩드레스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웨딩드레스
맞춤 판매 대여 부케
폐백 의상 연주복 신부화장
이리시 목화예식장 옆
☎ 52-1187
정기연(치릴로). 황인덕(마꼬라)

코오롱 모드 상설 할인 전주점
맨 스 타 89 추동 제품 50%할인
쟈 스 트 89 추동 제품 50%할인
벨라·플로라 89 추동 제품 60%할인
스 파 소 89 추동 제품 60%할인
남부시장 옆 코오롱 쇼핑 2층
김돈중(아드리아노) ☎83-4664

신자들의 소리

작은 사랑을 나누며

모자 세대 자원봉사자 강 상 자(마리아)／복자 성당

하얀 눈송이가 창밖을 수놓고 있다. 또 한해를 보내면서 이루지 못한 바람과 새해의 아련한 꿈으로 뒤엉킨 내 마음은 마냥 무겁기만 하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흔히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만을 위한 겉치레로 위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시청에서 관장해오던 모자 세대 돕기의 일을 가톨릭, 일반교회 등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맡게 되었다. 역시 일반 행정 지침만으로서는 모자 세대와의 대화에서 무언가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진지한 대화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 앞에 어느 한 가지 자신감있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까스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 사랑의 힘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두려워 말라. 나 너희와 함께 있노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쁜 하루 중에 한 두 시간 나름대로 말씀 곁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본다.

모진 폭풍우와 싸워가며 인생의 먼 훗날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홀로 서기를 열심히 펼쳐가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코끝이 시큰해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쪽 날개를 잃은 채 억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에서 마음을 위로해주며 또 위로를 받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조그만 방 한칸에 판막이를 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대부분 불편한 몸을 가누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얼굴에서 삶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다. 오로지 자녀들이 구김살없이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그들과 함께 신앙적 삶의 고백을 서로 나누며 돌아서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며칠 전 두 아이만 살고 있는 집을 찾았었다. 겨울인데도 연탄 한 장 없는 차디찬 방이 한없이 마음에 걸려 며칠 후 다시 찾았을 때 지난번 김치통에 채워두었던 김치가 유일한 반찬으로 남아 있었다.

흔히 연말연시가 되면 불우 이웃 돕기 등 일시적으로 떠들썩하다가도 그때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우리들 머리에서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불우 이웃, 모자 세대, 양로원, 고아원 등 그늘진 곳에서 삶을 영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는 마음 또한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함을 피부로 느낀다. 이들에게 봉사자의 따뜻한 손길이 그치지 않기를 기원한다.

기 도

이 영 자／원평 성당

주님!
한해를 마무리짓는 이 달에
우리는 너무 부족했던
주님께 향한 정성에
나무람을 궐하시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해 동안
괴로울 때는 쓰라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었고
기쁠 때는 가슴 벅찬 환희를
안겨주셨던 주님,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못함과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가련히 보시어
주님께로 살며시 다가서는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소서!

알고봅시다

어린이를 위한 영화 상영
장소－가톨릭센타 3층 강당

날으는 요술 침대
- 일시 : 12월 27일(목) 첫번째 오전 10시, 두번째 오후 2시.

벌거벗은 임금님
- 91년 1월 11일(금) 첫번째 오전 10시, 두번째 오후 2시.

중·고생을 위한 영화 상영
장소－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네째 왕의 전설
- 일시 : 12월 26일(목) 오후 2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 일시 : 12월 28일(금) 오후 2시.

고백의 비밀
- 일시 : 91년 1월 10일(목) 오후 2시.

*성탄시기에 권해드리는 책

마리아의 책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전적으로 협력하신 마리아의 생애를 동양사상 안에서 영성적으로 관조해간다.

Y·라겡／김옥희 1,300원 성바오로출판사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77－1713 수녀원 5－1714 주임신부 황 인 규
사무실 77－1711 유치원 77－1712 보좌신부 한 병 헌
사목회장 황 의 옥

축! 예수성탄 대축일 :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중앙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4일－저녁미사 : 소성당에서, 중앙의 밤 : 대성당에서 오후6시～9시30분 , 자정미사 및 구유 안치－오후11시30분. 25일－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 오전9시, 10시30분, 오후3시, 7시 미사(새벽 미사는 없음). 2. 세례식 : 오늘 오전 10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주일학교 달란트(은총)시장 : 25일 화요일 오후3시～4시30분,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4. 상지회 송년 모임 : 25일 저녁7시. 5. 성당 온풍기 기증 : 장남수(바오로) 형제가 4대 룰(500만원 상당)기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송년 미사 및 음악회 : 31일(월) 음악회－오후8시～9시30분, 송년미사－오후10시, 중앙가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산동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 순 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
수녀원 77－4212

1. 모임 : 자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회－24일 자정미사 후, 에스텔회－29일(토)12시, 애령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예수성탄 대축일 미사 및 행사 : 학생회 및 청년회 장기자랑 및 복권추첨－24일 오후8시부터, 전야미사－11시(세례식 있음), 공식미사－25일 10시30분(미사후 영세자 축하식), 저녁미사－25일 7시30분.
3.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 : 다음주일(30일) 오후2시 전단원 참석하세요.
4. 금주 성체 조배 : 26일(수) 오전 11시부터 27일 오전11시까지.
5. 12시흔인강좌 : 30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타, 회비 5,000원.
6. 전례 안내 : 23일 해설－이석규 ① 박병익 ② 강덕자, 24일 해설－손택규 ① 김병만 ② 문정숙, 25일 해설－한기철 ① 박영철 ② 김전순, 30일 해설－김택천 ① 최승호(동4) ② 송문녀
7. 성당청소 : 금주－은총의 어머니. 차주－하늘의 문

□ 지난주 봉헌금 : 418,720원 □ 지난주 교무금 : 523,500원
□ 수요헌금 : 53,470원

*숲정이
사제관 76－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김 동 준
수녀원 252－9567 사목회장 김 경 주

1. 축! 결혼 : 김춘곤씨 아들 김종선(그레고리오)군과 김남순여사 딸 이현숙양(오늘 낮12시). 2. 성탄 전야제 미사 : 24일 밤11시. 3. 성탄대축일 미사 : 오전10시, 오후3시, 오후7시. 4. 성가대총회 : 25일 10시미사 후. 5. 성탄예술제(24일) : 초등부 어린이－오후4시, 중고등부－오후8시반. 6. 세분수녀님 연말 피정 : 26～28일 광주 명상의 집. * 많은 기도 부탁드림. 7. 유아세례 : 29일 후5시. 8. 다음주일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축일. 모임－요한회. 9. 금주 전례 : 전북2동4구. 10. 성탄대축일과 차주 전례 : 전북2동 5구.

□ 지난주 봉헌금 : 789,620원 □ 교무금 : 1,938,000원
□ 자선의 날 2차헌금 : 377,860원
□ 마당외등(1대)과 오르간기금으로 봉헌(익명) : 일백만원

*금암
FAX 251－3850 사제관 251－1912 주임신부 왕 수 해
사무실 251－1911 보좌신부 251－1913 보좌신부 이 사 정
사목회장 정 주 환

※ 축! 성탄.
1. 좀도리쌀 : 정성껏 모음시다(오늘까지).
2. 성탄판공 : 오늘까지(2시～5시, 7시～10시).
3. 달력 배부 : 1세대 1나씩.
4. 성탄미사 안내 : 24일－저녁11시, 25일－새벽6시, 10시30분, 저녁7시.
5. *유아세례 : 29일 저녁7시－대상자 사무실 신청(성탄 영세하신 자녀도 신청요망－국교생 이하).*
6. 금주 전례 : 해설－권홍주 독서① 김옥기 ② 조정님
봉헌－이강옥 부부 복사－정문영, 강남수
7. 차주 전례 : 해설－김덕수 독서① 강병주 ② 박춘자
봉헌－박영근 부부 복사－이대용, 정희권
8. 미사안내 : 정의의 거울Pr. 차주－인자하신 모친.

□ 지난주 봉헌금 : 902,930원 □ 교무금 : 2,637,000원

*서신동
사제관 74－9261 주임신부 박 성 팔
사무실 74－9260 사목회장 박 병 열
수녀원 74－9262

1. 축! 성탄: 성탄 전야 일부 행사 : 저녁7시～10시30분, 성탄 자정미사 : 11시30분, 성탄 대축일 미사 : 오전10시. 2. 교무금과 신축금을 완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의자대금 및 비품대를 완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카드 판매 : 학생회에서 15일부터.
5. 불우사랑회 : 기금마련을 위한 찹쌀－23일～25일까지.
6. 성모회 임원 : 회장－오옥동, 부회장－박귀복, 총무－김미숙.
7. 사용하신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모임 : 엠마우스회－27일 저녁미사후. 차주모임－방주회.
9. 금주 청소 : 5구 및 어은골. 차주－1구.
10. 금주 전례 : 해설－김형식 독서① 임상영 ② 조기순
차주 전례 : 해설－김형식 독서① 유춘웅 ② 윤덕남

□ 지난주 봉헌금 : 408,110원 □ 교무금 : 728,000원

*인후동
사제관 86－8876 수녀원 86－8875 주임신부 서 용 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정 수 일

※ 축!성탄 : 아기예수님 오심을 축하드리며 온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빕니다. －본당신부－
1. 꾸리아 월례회의 : 23일 오후2시.
2. 성탄행사 : 24일 저녁7시30분 성탄의 밤, 24일 저녁11시30분 자정미사, 25일 오전10시30분 공식미사, 25일 오후4시 어린이미사, 25일 오후7시30분 저녁미사.
3. 성사 안보신 분은 빨리 보세요(미사시간 15분전에 드립니다).
4. 검소하게 성탄과 새해를 맞이합시다. 5. 자모회 총회 : 27일 어머니미사 후.
6. 교무금을 완납하시고 성탄을 맞이합시다. 7. 성탄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8. 대부모님은 대자대녀를 잘 돌봅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005,250원 감사합니다.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 태 수
사무실 252－2182 보좌신부 오 성 기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 낙 현

※ 축! 예수성탄대축일 :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덕진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불우이웃을 위한 2차 헌금 : 오늘 각 미사중에.
1. 예언자의 모후 꼬미씨움 회의 : 오늘 오후2시 성당. 2. 성탄전야행사 : 24일 저녁8시부터(각팀 장기자랑), 자정미사－24일 밤11시에. 3. 성탄미사 : 25일 오전10시30분, 오후4시, 저녁7시미사. 4. 구역장·반장회의 : 27일(목) 오후2시. 5. 주일학교 성탄행사 : 25일 오후2시부터 성당에서. 6. 사목임원, 각 단체장 모임, 최수녀님 송별식 : 26일 저녁6시30분까지 성당으로 나오세요. 7. 금주 전례 : 해설－김봉두 복사·독서 : 사목회 기도－덕전16반. 8. 금주 본당청소 : 매괴의 모후Pr－29일 오후2시.

□ 지난주봉헌금 : 1,175,770원
□ 교 무 금 : 5,518,500원

*송천동
사제관 74－8873 사무실 74－1004 주임신부 김 태 윤
수녀원 4－1142 사목회장 김 인 철

1. 교사회 : 공식미사 후.
2. 성탄행사 안내 : 전야제－24일 저녁9시(단체별) 구유예절 및 성탄미사－11시. 25일－오전9시, 10시30분(세례식) 오후4시, 어린이미사. 3. 소년원 위문행사 : 26일 오후2시.
4. 유아세례 : 29일 오후5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5. 금년 교무금을 완납하시고 내년 교무금을 신입합시다.
6. 금주 본당청소 : 8구역 29일 오전10시.
7. 금주 전례 : 해설－이길호 독서·봉헌－박형춘, 최인주
기도－김환국, 이원옥
8. 성지개발 : 김점남(세레나) 4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720,070원 □ 교무금 : 1,305,000원
□ 자선의 날 : 196,520원

*호성동
사제관 78－0075 주임신부 정 양 현
사무실 78－1140 사목회장 박 대 규
수녀원 78－0094

※ 축! 성탄
1. 꾸리아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탄미사 및 행사 안내 : 24일－오후7시30분～11시. ① 초등부－연극 ② 중·고등부－캐롤송 ③ 구역별 성가 경연대회 ④ 성탄복권놀이, 복권10장－2,000원. 25일 : 오전10시30분－공식미사, 오후4시－아동 오후7시.
3. 성탄선물 회사자 모집 :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4. 미사안내 : 금주－죄인의 피난처Pr. 차주－지혜로우신 동정녀Pr.

□ 지난주 봉헌금 : 583,420원 □ 교무금 : 1,394,000원
□ 2차헌금 : 331,610원